

•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윤리와 사상]

1	④	2	④	3	②	4	②	5	③
6	⑤	7	③	8	②	9	④	10	④
11	②	12	⑤	13	③	14	⑤	15	④
16	⑤	17	①	18	①	19	①	20	⑤

1. [출제의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삶의 태도 이해하기

그림의 스승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이 최고선, 즉 행복이라고 보았다. 또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지혜를 바탕으로 중용을 습관화하여 유덕한 성품을 함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 [출제의도] 대동 사회와 유토피아 이해하기

(가)는 공자의 대동 사회, (나)는 모어의 유토피아이다. 대동 사회는 훌륭한 인제가 등용되고 약자가 보호를 받으며, 가족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인륜이 구현된 사회이다. 유토피아는 빈곤과 낭비가 없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며, 생산과 소유에 있어서 평등한 사회이다. 한편 대동 사회와 유토피아는 모두 개인의 도덕성이 타락하지 않은 질서 있는 사회이다.

3. [출제의도] 정약용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정약용의 주장이다. 정약용은 인간의 성(性)을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의 경향성 [嗜好]'으로 보았으며, 인간은 선이나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주지권(自主之權)을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의예지는 인간의 마음에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四端)의 지속적인 실천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4. [출제의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은 신에 대한 사랑이며, 신을 사랑해야만 천상의 국가에 속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신은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이며, 오직 신앙을 통해 신에게 귀의함으로써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5. [출제의도] 노자의 사상 이해하기

(가)는 노자의 주장이다. 노자는 백성들로 하여금 무지(無知)하고 무욕(無欲)하게 하는 무위(無爲)의 정치를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연의 이치에 따라 억지로 힘이 없는 무위로 다스리면,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다고 보았다.

6. [출제의도] 아리스토텔레스와 로크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아리스토텔레스, 율은 로크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인간의 정치적 본성으로부터 형성된 자연적 산물이라고 보았다. 반면 로크는 국가를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들 간의 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정치 기구라고 보았다.

7. [출제의도] 왕수인과 주희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왕수인, 율은 주희이다. 왕수인은 '마음 밖에 이치가 없고 마음 밖에 사물이 없다.'라고 보았으며 마음이 곧 이치라는 심즉리(心即理)를 주장하였다. 또한 마음의 본체는 이론적 학습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주희는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갖추어진 선한 본성은 곧 우주 만물의 보편적 법칙인 이(理)라는 성즉리(性即理)를 주장하였다. 또한 지행(知行)의 선후 관계에서 지(知)가 행(行)보다 앞선다고 보았다.

8. [출제의도]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소크라테스, 율은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이다. 소크라테스는 이성을 통해 무지를 자각하고 영혼을 수련함으로써 절대적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고 모든 판단의 기준은 각 개인이므로, 보편타당한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9. [출제의도] 스피노자와 데카르트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스피노자, 율은 데카르트이다. 스피노자는 자연을 수학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로 보았으며, 인간과 사물은 필연적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하는 방법적 회의론을 통해 확고부동하고 자명한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스피노자와 데카르트는 모두 이성을 통해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10. [출제의도] 공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공자의 주장이다. 공자는 존비친소(尊卑親疏)를 분별하는 사랑인 인(仁)의 실천을 주장하였다. 또한 개인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진정한 예(禮)를 회복해야 한다는 극기복례(克己復禮)를 강조하였고, 누구나 노력을 통해 군자(君子)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11. [출제의도] 의천과 지눌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의천, 율은 지눌이다. 의천은 경전의 교리를 이해하는 교(敎)와 참신 수행하는 관(觀)을 함께 닦아야 한다는 교관겸수(敎觀兼修)를 주장하였다. 또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지눌은 마음의 혼란함을 없애는 정(定)과 마음의 어리석음을 없애는 혜(慧)를 함께 닦아야 한다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주장하였다. 또한 깨달은 후에도 나쁜 습관을 제거하기 위해 집진적이고 지속적인 수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12. [출제의도] 에피쿠로스학과 스토아학파 비교하기

같은 에피쿠로스, 율은 스토아학파의 사상가이다. 에피쿠로스학파는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쾌락을 강조하며 육체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상태[ataraxia]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스토아학파는 정념에 이끌리지 않고 이성을 따르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통유하지 않는 상태[apatheia]에도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에피쿠로스학과 스토아학파는 모두 행복 실현을 위해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13. [출제의도] 순자와 맹자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순자, 율은 맹자이다. 순자는 인간의 성(性)이 악하다는 성악설(性惡說)을 주장하였으며, 타고난 이기심을 그대로 따르면 다투고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았다. 반면 맹자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선한 도덕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성선설(性善說)을 주장하였으며, 타고난 인의(仁義)를 확충하여 대인(大人)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순자와 맹자는 모두 이상적 인간이 되기 위해 지속적인 수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14. [출제의도] 키르케고르와 사르트르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키르케고르, 율은 사르트르이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은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스스로 신을 믿고 따르겠다는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고, 종교적 실존 단계에서 참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르트르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고 보았으며, 인간의 본질을 정해주는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책임을 질 때 참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5. [출제의도] 칸트와 벡담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칸트, 율은 벡담이다. 칸트는 도덕이 행복의 수

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보았으며,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행위의 결과가 아닌 동기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벡담은 사회적 유용성을 증진시키는 행위를 도덕적 행위라고 보았으며,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행위의 동기가 아닌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칸트와 벡담은 모두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보편적 원리가 있다고 보았다.

16. [출제의도] 불교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불교 사상의 입장이다. 사성제(四聖諦)는 석가모니가 깨달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이다. 또한 불교에서는 무명(無明)이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번뇌를 소멸하기 위해서는 무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17. [출제의도] 스미스와 케인스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스미스, 율은 케인스이다. 스미스는 자유방임의 시장 질서를 강조하며, 정부는 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케인스는 시장의 균형을 이루도록 정부가 적절히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빈곤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스미스의 입장에 비해 케인스의 입장은 X축은 낮고, Y축과 Z축은 높다.

18. [출제의도] 듀이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듀이의 주장이다. 듀이는 결과의 유용성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보았으며,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도덕은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19. [출제의도] 플라톤의 사상 이해하기

그림의 강연자는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국가 안의 세 계층이 다른 계층의 일에 참견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교환하는 것은 국가에 큰 해악이 된다고 보았으며, 각자 자신의 적성에 맞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상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좋은 이데아에 대한 인식과 인격을 겸비한 철학자가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철학과 정치권력의 결합을 강조하였다.

20. [출제의도] 이황과 이이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이황, 율은 이이다. 이황은 이(理)와 기(氣)가 모두 발한다는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주장하였으며, 사단과 칠경의 원천이 다르다고 보았다. 반면 이이는 이는 발하는 까닭이고 기는 발하는 것이라는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주장하였으며, 칠경은 사단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한편 이황과 이이는 모두 사단이 누구나 지니고 있는 감정[情]이라고 보았다.